학교 기자재 납품때 리베이트 수수

교장·행정실장 등 4명 영장

전남경찰, 납품업체 대표 15명도 입건

신설학교 기자재 납품 과정에서 리베이트를 주고받는다는 소문이 사실로 밝혀졌다.

전남지방경찰청은 15일 신설학교 기자재를 구입하면서 납품업자들로부터 리베이트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광주 S중 전 교장 박모(59)씨와 전 행정실장 윤모(51)씨, 광주 W중 교장 김모(55)씨와 행정실장 윤모(여·46)씨 등 모두 4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이들 학교에 컴퓨터·교구·사무기기 등을 납품하는 대가로 총 5천여만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뇌물공여 등)로 L컴퓨터 대표 백모(여·47)씨 등 15개 기자재 업체 대표 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신설학교인 S중 박 전 교장과 윤 전 행정실장은 개교를 앞둔 지난 1~2월 컴퓨터·방송실 어학실 장비·교구·구내전화 등 3억9천만원 상당의 기자재를 구입 하면서 11개 업체로부터 2천600만원을 받은 혐의다.

W중 교장과 행정실장도 같은 방법으로 3억여원의 기자재를 구입하면서 9개 업체로 2천9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납품금액의 10~20%인 30만원~1천500만원을 받아 챙겨 절반씩 나눠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박 전 교장과 김 교장은 혐의 사실을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다음주 초 열린다.

경찰은 광주의 다른 신설학교에서도 납품 비리가 더 이뤄졌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경찰은 올초 S중 납품 계약과정에서 2천58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가 학교 측에 건네졌다는 내부 고발을 토대로 지난달 25일부터 3주일째 관련 수사를 벌여 왔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해 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개정되면서 뇌물수수 공무원 구속기준이 기존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완화됐으나, 범죄 성격과 사회적 파장 등을 고려해 관련 공무원 전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교육감 선거권 등을 지닌 학교운영위원 선정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윤영월 광주서부교육장에 대해서도, 이와 관련한 금품거래 혐의가 드러날 경우 수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학교 납품비리 왜?

교장·행정실장에 결정권 집중
조달 계약까지도 금품 '충격'

신설학교 기자재 납품 비리는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감시할 학교운영위원회 등이 미처 꾸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학교장과 행정실장 주도로 기자재 구입이 이뤄지고 있는 현행 제도의 맹점 때문이다. 특히 광주지역의 경우 납품 업체 간 경쟁이 다른 지역에 비해 치열하다 보니 학교 관계자를 상대로 한 로비와 리베이트 제공이 사실상 관행이 됐다.

학년당 6학급인 S중의 경우 올 1월 부임한 박모 전 교장과 윤모 전 행정실장이 서부교육청으로부터 4억3천여만원을 배정받아 3월 개교를 앞두고 1~2월에 서둘러 예산을 집행했다.

예산 배정액은 체육교구 1천만원, 보건실 500만원, 과학실 2천만원, 컴퓨터실 4천500만원, 대형 모니터 1천656만원, 컴퓨터 810만원, LCD 프로젝트 400만원, 실물화상기 540만원, 어학실 3천만원, 방송실 2천만원, 신설학교 경비 5천만원, 관리실 비품 구입 1억7천650만원, 미술실·음악실·도서실 4천350만원 등이었다. 이 학교는 이후 추가로 6천만원을 배정받았다.

박 전 교장과 윤 전 실장은 4억9천만원 가운데 3억9천만원을 컴퓨터·방송실 장비·급식용 주방기구 등 기자재와 비품을 구입하는데 썼다. 조달청에 맡겨 물품을 구입하는 '조달요청'으로 6천여만원, 조달청에서 공시한 가격을 근거로 조달청을 통해 물품을 구입하는 '조달 3자 단가계약'으로 2억6천여만원, 1천만원 이하 시설 및 500만원 이하 물품에 대한 '수의계약'으로 2천300만원, 중소기업협동조합 '단체수의계약'으로 3천만원 등을 구입했다.

이 과정에서 박 전 교장과 윤 전 실장은 특히 '조달 3자 단가계약'의 경우에도 납품선정 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학년당 8학급으로 S중보다 학교 규모가 조금 큰 W중은 서부교육청으로부터 당초 4억4천여만원을 배정받았으며, 이 학교 김모 교장과 윤모 행정실장도 납품 업체로부터 리베이트 명목으로 2천90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황태종기자 hwangtae@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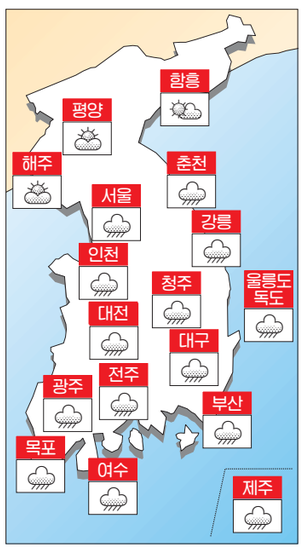
나원참 〈6928〉 김종두

태풍 '산산'이 다가온다

기압골의 영향으로 흐리고 한 두차례 비가 오겠다.

9월 16일 (윤 7월 24일) 날씨

광 주	18~22℃
목 포	17~22℃
여 수	18~21℃
완 도	17~21℃
구 례	17~23℃
해 남	18~22℃
장 흥	18~22℃
고 흥	18~22℃
순 천	17~23℃
영 광	16~23℃
진 도	17~23℃
전 주	18~23℃
남 원	17~22℃
정 읍	17~22℃



서해남부 앞바다
북동~남동풍
파고 1.5~4.0m
서해남부 먼바다
북동~남동풍
파고 2.0~4.0m
남해서부 앞바다
북동~남동풍
파고 2.0~4.0m
남해서부 먼바다
북동~남동풍
파고 2.0~5.0m

▲해뜸 06:15 ▲해짐 18:39
▲달뜸 --:-- ▲달짐 15:24

목포 밀물〈08:34 22:13 썰물〈03:03 14:32 여수 밀물〈04:54 17:59 썰물〈10:38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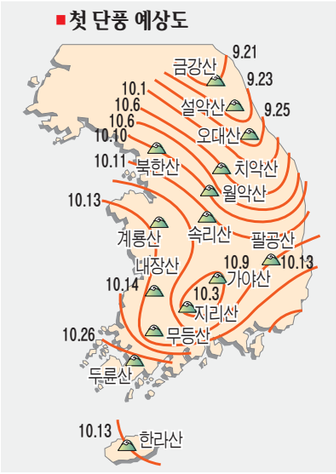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 짜	17(일)	18(월)	19(화)	20(수)	21(목)	22(금)
날 씨						
최저/최고	18/21	16/25	17/27	17/26	16/25	17/26

'단풍' 빨리 물든다

작년보다 8일 빠르고 색깔도 선명할 듯

■첫 단풍 예상도



올 가을 지리산(해발 1,915m) 단풍은 10월3일 시작돼 10월14일 절정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또 10월 날씨가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맑은 날이 많고 일교차가 클 것으로 전망돼 단풍 색깔이 평년보다 더욱 아름다울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15일 '2006년 단풍시기 예상'을 발표, "9월1일~12일 북쪽의 한기가 일시적으로 남하, 전국 평균 기온이 예년보다 1.8도, 지난해에 비해서는 3.3도 각각 낮아지면서 올해 단풍이 평년보다 3일, 지난해보다는 8일 일찍 찾아올 것"이라고 밝혔다.

무등산(1,187m)은 10월16일에 시작, 29일께 가장 붉게 타오르고, 두륜산(703m)은 10월26일부터 물들기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금강산(1,638m) 단풍은 설악산(1,708m)보다 2일 정도 빠른 이달 21일 시작돼 다음달 11일께 절정에 달할 것이며, 설악산은 다음달 12일 절정에 이르면서 전체 산이 붉게 물들 것으로 예상된다. 한라산(1,950m)은 다음달 13일, 내장산(763m)은 다음달 14일에 각각 단풍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상청은 산 전체 면적의 20% 가량이 물들었을 때를 단풍 시작일로, 단풍이 전체 면적의 80% 가량에 달할 때를 절정일로 잡고 있다. 단풍은 기온이 식물의 생육 최저온도인 영상 5도 이하로 떨어지면 시작되고 9월 상순 이후 기온이 낮을수록 단풍시작 시기도 빨라진다. /이승배기자 lsb54@kwangju.co.kr

광주 대인시장 '고객사랑 나눔축제'

광주 '대인시장 상가번영회'(회장 정범수)는 15일 상인과 고객 등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객사랑 나눔축제' 행사를 가졌다. 이날 '나눔축제'는 장기자랑·초대가수 공연·댄싱쇼·행운권 추첨 등 순으로 오후 2시부터 8시까지 계속됐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동광양중 학생 44명 설사 등 식중독 증세

4명 입원 치료

광양시 동광양중학교에서 집단 급식 사고가 발생, 보건당국이 역학조사에 나섰다.

15일 전남도교육청과 광양보건소에 따르면 동광양중학교 학생 44명이 이날 오전부터 설사와 복통 등의 식중독 증세를 보여 광양 사랑병원 등 3개 병원에 입원했다.

이들 학생 중 증세가 경미한 40명은 귀가조치됐으나, 한모(13)양 등 4명은 이날 오후 현재 입원·치료를 받고 있다.

광양보건소는 학생들이 전날 학교에서 점심을 먹고 탈이 난 것으로 보고 음식물과 식자재 등을 수거해 전남 보건환경연구원에 역학조사를 의뢰했다. 이 학교는 외부위탁이 아닌, 직영급식을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보건소 측은 학교 및 조리실 종사자들을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학생들은 전날 점심으로 꼬막·탕수육·미나리 초무침 등을 먹은 것으로 알려졌다.

광양보건소 관계자는 "학생들이 주로 장염 증세를 보이고 있다"며 "72시간 동안 보관하도록 된 보존식을 수거, 역학조사를 의뢰하고 정밀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AI 감염자 5명 추가 확인

〈조류인플루엔자〉

지난 2003년 말부터 2004년 3월 사이 조류인플루엔자(AI)가 유행할 당시 닭·오리 등의 가금류 살처분에 참여했던 관계자 중 AI 바이러스 H5N1에 감염됐던 5명이 추가로 확인됐다.

질병관리본부는 당시 살처분에 종사했던 2천109명에 대한 추가 H5N1 항체 검사 결과, 5명이 더 양성반응을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AI 무증상 감염자는 최종적으로 9명인 것으로 공식 집계됐다.

질병관리본부는 이번에 추가로 확인된 감염자 5명의 경우도 지난 번과 마찬가지로 '무증상 감염자'로, AI 바이러스(H5N1)에 노출되긴 했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증상이 없었기 때문에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규정하는 AI환자나 AI바이러스 보균자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들 무증상 감염자는 감염 당시는 물론 현재도 건강상태에는 전혀 이상이 없다고 질병관리본부는 말했다.

/서민정기자 viola@kwangju.co.kr

불법 난동 기아車 노조원 3명 회사측 고발 취하 불구 영장

광주서부경찰, 9명은 불구속

사회통념에 벗어나고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미친 노사문제의 경우, 회사 측의 고소·고발 취하 여부에 관계없이 사법당국이 엄격히 법을 적용하는 선례가 나왔다.

광주 서부경찰은 15일 생산라인 인력배치와 관련, 불만을 품고 공장 사무실의 집기를 부수는 등 난동을 피운 혐의(재물손괴 등)로 기아차 광주공장 노조 간부 박모(37)씨 등 3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난동에 가담한 정도가 심한 노조원 9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지난 4월18일 오후 6시40분께 "사측이 직원들과 합의없이 신차인 뉴카렌스 생산라인에 인원을 배치했다"며 기아차 광주공장 인사실·공장장실·총무실 등에 들어가 집기를 부수고 소화기를 분사하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다. 회사 측은 이틀 뒤인 20일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했으나, 며칠 뒤 노사갈등을 해소한다는 취지에서 고발장을 취하했다.

경찰은 그러나 노조간부가 공장장 사무실 등에 침입해 집기를 파손한 것은 사회 상도(常道)에 어긋나고, 9일동안 조업 중단으로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끼쳤다고 판단, 자체적으로 수사를 벌인 뒤 검찰과 협의해 이날 사법처리키로 결정했다. /서민정기자 viola@

충장공 김덕령 장군 제 410주기 제향 행사

임진왜란 의병장으로 목숨을 바쳐 싸운 충장공(忠壯公)의 호국정신을 기리기 위한 '김덕령(金德齡) 장군 제 410주기 제향 행사'가 15일 오전 11시 광주시 북구 금곡동 충장사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이병화 광주시 정무부시장, 김원본 광주시 교육감, 강기정 국회의원(열린우리당), 문인 광주시 북구 부구청장 등 기관 단체장과 김양균 유족보존회장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충장공은 1568년 광주시 북구 충효동(옛 석저촌)에서 태어나, 선조 25년(1592)에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의병을 일으켜 호익장군(虎翼將軍)의 호를 받았다. 김 장군은 이듬해 의병장 곽재우와 함께 여러 차례 왜병을 격파했지만, 선조 29년(1596)에 무고로 고문을 받고 옥사했다.

/이승배기자 lsb54@kwangju.co.kr

'충장공(忠壯公) 김덕령(金德齡) 장군 제 410주기 제향 행사'에 참석한 종중 관계자들이 15일 분향식 후 장군의 묘를 참배하고 있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광고주가 현영씨에 손해배상하라"

쌍나팔

○…광고모델 계약 파기를 둘러싸고 광고주와 연예인 현영(사진·본명 유현영)씨·소속사 간 벌어진 맞소송에서 법원은 '광고주의 계약금 지급' 의무가 '모델활동' 의무보다 우선한다고 판결해 눈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강민구 부장판사)는 15일 화장품업체 P사와 연예인 현영씨·현씨의 소속사 D사가 서로 "먼저 광고모델 계약을 파기해 손해를 입었다"며 낸 위약금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각각 원고 일부승소 판결.

○…재판부는 먼저 P사가 "현씨가 광고모델 계약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피해를 봤다"며 낸 위약금소송에서 "계약에 따르면 원고는 피고 회사에 계약금 중 2천만원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주지 않았으므로 모델 계약은 원고의 귀책사유에 의해 해지된 것이다"고 설명.

○…재판부는 "따라서 원고가 계약금을 지급할 의무가 현영씨가 광고 및 홍보활동에 협조할 의무보다 먼저 이행해야 할 의무"라고 판시.

/연합뉴스